

#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광주정신' 세계에 알린다

###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프로젝트

올해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가 모태가 된 '광주정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대규모 특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3월부터 광주시립미술관과 공동으로 20주년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미술, 1980 그 후'(이하 특별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시는 오는 8월1일부터 11월8일까지 100일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15개국 50여명 작가가 '국가 폭력'이라는 광주와 유사한 경험을 지닌 오키나와, 타이완, 제주도 등의 사례를 미학·사회적으로 접근한다.

강연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진행된다. '광주정신'을 주제로 한 학계와 시민사회계의 좌담회와 국제세미나도 마련된다. 또 광주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책도 발간할 예정이다. 퍼포먼스는 '오월길' 등을 걸으면서 역사의 흔적을 더듬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제10회 광주비엔날레(총감독 제시카 모건)는 오는 9월5일부터 11월9일까지 66일간 '터전을 불태우라(Burning Down the House)'를 주제로 열린다.

### ◇광주문화재단 2기 출범

지난해 말 노성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연임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과 신임 이사진 구성에 관심이 쏠려 있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과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 재단의 조직과 기능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강구한 후 후임 대표 인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정관에 따라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이 직무 대행을 맡게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대표 이사 선임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또 신임 이사진 역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참신한 인사들로 짜여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문화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재단 사무처장이 아닌, 시 문화정책실장이 직무 대행을 하도록 한 규정 등 불합리한 정관을 재검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이전

문화 핵심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4월 나주 이전은 지역 문화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 정부가 문화융성을 대표 정책 지표로 내세우며 문화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문화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토대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14년 광주·전남 문화 지형도

2014년 광주·전남 문화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첫발을 뚫은 지 9년만에 완공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나주로 이전하는 등 어느해보다 큰 변화가 눈에 띈다. 올해 지역문화계를 몇가지 키워드로 살펴봤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제10회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광주정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제9회 비엔날레 작품 중 하나인 볼프강 라이프의 '끝없는 바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예술지원본부, 문화나눔본부, 경영전략본부 3개 본부로 구성된 위원회는 전체 120명 인원중 100명이 나주로 내려오며 올 한해 사업비는 지난해 1094억에서 654억원이 늘어난 1748억원이다. 지역문화계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 비엔날레재단, 광주문화재단 등이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시립예술단체 제도안

지난해 노조 파업, 지휘자 낙마 등으로 어수선했던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은 올해 심기일전한다. 일단 지난해 수장 없이 운영됐던 교향악단 등 3개 단체가 새로운 사령탑을 맞이하면서 7개 예술단체 수장이 모두 갖춰졌다. 교향악단의 이현세 상임지휘자는 오는 7일 위촉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1년 넘게 공석이었던 합창단을 이끌게 된 임한귀 지휘자와 소년소녀합창단의 신임 운영진 지휘자의 활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합창단은 3월 임 지휘자의 취임 연주회를 준비중이며 시립극단은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극을 무대에 올리는 등 각 단체들도 신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인문학 강좌 붐

지난해 지역 문화계의 큰 흐름 중 하나는 인문학 강의 열풍이었다. 올해 역시 그 흐름을 이어간다. 젊은 인문학 연구자들의 모임인 '무등지성'은 전남대 철학연구소와 함께 '광산구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며 유교 인문학을 주제로 광산 월봉서원에서 강의를 연다.

지난해 '한국의 미'를 주제로 강의를 열었던 국립광주박물관의 박물관 대학은 올해 서양미술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또 광주여성재단은 3월부터 '가족'을 주제로 부부, 자녀, 부모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며 광주시립미술관도 강의를 준비중이다. 그밖에 들불학당도 6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르게 생각하는 인문학'을 시작으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시인 용아 박용철 탄생 110주년

올해는 '떠나가는 배'로 유명한 용아 박용철 시인의 탄생 110주년이 되는 해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이 고향인 용아는 김영랑(1903~1950) 시인과 함께 시문학계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문인이다.

1904년에 태어나 1938년 서른넷이라는 짧은 생을 마칠 때까지 치열한 삶을 살다가 선각자였다. 그는 예술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작품을 썼으며 외국어의 시와 희곡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올해는 용아기념사업회가 꾸려지고 학술심포지엄(서울·광주), 시노래 경연대회, 용아백일장 등으로 구성된 용아문학제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다.

### ◇화가 김창열·윤두서 전시회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오는 2월 김창열 화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 화백은 무색, 무취, 무의(無意)한 물방울을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평생과업으로 생각하고 천착해온 작가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오는 11월께 '효인(孝彦) 윤두서'전이 열린다. 조선 후기 산비탈화, 시·사·화에 두루 능했던 윤두서는 예리한 관찰력과 뛰어난 필력으로 인물화와 말 그림을 대표적으로 남겼다. 특히 그의 대표작인 '윤두서상'은 국보 제240호로 지정돼 있다.

/김미은기자 mekim@·김경민기자 kki@

온통 하얀색이다. 화이트 큐브에 전시된 하얀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마저 따뜻해진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7일까지 'WHITE'를 테마로 다양한 미술 작품을 보여주는 연말연시 기획전을 연다.

신세계갤러리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색'에 담아 재해석한 전시다.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시연, 박형규, 배성희, 신호운, 오유경, 이상미, 정선휘, 차규선, 최성민, 하태범, 홍승희 등 모두 11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회화, 사진, 입체, 설치 등 다양한 조형언어로 담아낸 작품 25점은 모두 화이트 톤이다. 일상을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작품들은 강렬한 색채는 없지만 감성을 자극한다.

'화이트'라는 색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환희, 기쁨, 확장된 느낌을 담고 있기도 하며,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하얀 전시장에서 하얀 옷을 입은 작품들은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WHITE'

광주신세계갤러리 7일까지 연말연시 기획전



박형규 작 '눈사람'

## '인간 그리고 자연'

무등현대미술관 2월28일까지 손봉채 초대전



'MIGRANTS'

방탄유리만큼 단단한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해 새로운 기법의 입체 산수화를 선보이고 있는 손봉채씨가 무등현대미술관에 초대됐다.

손씨는 오는 2월28일까지 '손봉채-인간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작품을 전시한다. 작가는 작품에 표현된 소나무를 통해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인을 해석했다. 산업화와 개발에 밀려 제 땅에서 살지 못하고 곳곳으로 팔려나가는 나무에서 대도시와 선진국을 찾아 떠나는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했다.

조경수가 낯선 땅에서도 아름다움을 선사하듯, 그의 작품들은 한 폭의 산수화처럼 펼쳐진다. 하지만 작가는 이 같은 아름다움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말한다. 나무가 숲 속에서 자연스레 자라는 것을 보고 살아가듯 우리들도 잊고 지낸 고향과 가족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다. 손씨의 작품들은 인공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정체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금강산도'도 1년에 걸쳐 작업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8일부터는 '손봉채 작가와 함께하는 색을 담은 입체회화 만들기' 프로그램이 열린다.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한 새로운 기법의 입체작품 만드는 방법을 작가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 문의 062-223-667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014년 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유은굴비 유통』은 영광 법성포 공장에서 국내산 참조기만을 직접 제조하여 전국 유명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보다 30%이상 저렴하게 명절선물세트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회사로 이번 명절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문해 주신다면 회원 여러분 한분 한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박영길(요한)  
 광주상고27회 사무총장 /  
 국제로터리 3710지구 광주인성로터리 클럽회원 /  
 바르게 살기운동 광주광역시 협의회 이사  
 국제와이즈엔 한국남부지방 광주동지방 빛고를 클럽회원

**신박처 및 품질보증서**

유은굴비 직판장 : 광주광역시 북구 두리봉길 10(두암동 585-1)  
 (에덴병원 건너편 관신사우나 앞)  
 TEL. 070-8724-9289, (062)233-9289(FAX 겸용)  
 H-P. 010-4900-9289(굴비팔구)  
 공장: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1142-14  
 TEL. : (061) 356-4422

입금계좌번호 : 광주은행 : 050-121-805628 / 농협 : 352-0489-6439-03  
 국민은행 : 773902-01-136190 / 외환은행 : 620-207601-938

배송방법 : 전국 어느 곳이든 익일 택배가능(광주는 당일)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하실 수 있으며 통장입금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특산물 영광굴비 법성운해굴비(주)직각상

별도로 "밤도독년"이란 유엔이 붙은 영광굴비가 있는데 유엔이 붙은 영광굴비가 맛있습니다.

**유엔이 붙은 영광굴비**

유엔이 붙은 영광굴비 맛있습니다.